

두산중, 40년 내공 '주단조' 해외 진출... 사우디에 '합작사'

두수르·아람코와 공장 설립 협약
주단조품 연간 6만톤 생산규모
제강부터 주단조·가공 일괄생산
올해 착수, 2025년 1분기 완공

두산중공업이 지난 40여년간 축적해 온 주조·단조 부문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과 사우디에 주단조 합작회사를 세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 사우디 아람코의 완전 자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개발 회사와 세계적인 규모의 주단조 합작회사인 TWAIG Casting & Forging 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 수정안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압둘아지즈 빈 살만 알 사우디 사우디 에너지 장관,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 반다르 알 코라이예프 사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주주간 협약 체결식에서 두산중공업 전하용 상무(왼쪽부터), 사우디산업투자공사 두수르 라예드 알 레이스 사장, 사우디아람코개발회사(SADC O) 왈리드 알 사이프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야시르 알 루마안 사우디 국방펀드(PIF) 총재가 참석했다.

합작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 베일 인근 라스 알 카이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서 건설된다. 올해 공사 착수해 오는 2025년 1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합작 공장은 40만㎡의 면

적에 연간 6만톤의 주단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제강·주단조·가공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주단조 공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작회사의 주력 생산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석유 화학 플랜트용 펌프·밸브, 조선·해양 플랜트용 기자재에



Twaig 주단조 공장 조감도

소요되는 주단조 소재이다. 장기적으로는 풍력 발전 플랜트 및 발전 플랜트용 주단조 제품까지 생산 영역을 확대한다.

두산중공업은 공장 건설을 위해 합작회사와 1조원 규모의 EPC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장 건설과 주요 설비 공급을 위한 경쟁 입찰에 국내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사우디 아라비아 및 해외 기업들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두산중공업 주단조

기술의 첫번째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작사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두산과 사우디아라비아 파트너사들과의 파트너십이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작회사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작회사는 산업 발전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주단조 산업 기반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국가 기간 산업 전반에 걸쳐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2세대 니로 '흥행'... 사전계약 첫날 1.6만대

기아, 친환경 SUV 시장 선도
국내 SUV 최고 복합연비 갖춰

기아의 친환경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니로가 출시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아는 18일부터 전국 기아스토어를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친환경 전용 SUV 신형 니로의 첫날 계약대수가 1만 6300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쏠렌토(1만8941대)에 이어 기아 SUV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자 동일한 차급에서 최고 수치다.

기아는 이로써 기업 비전인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로서 저력을 보여줬으며, 신형 니로가 친환경 SUV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모델임을 입증했다.

니로는 2016년 출시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총 67만5798대(국내 13만



기아 신형 니로.

1157대, 해외 54만4641대)가 판매되며 친환경 SUV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기아는 이번 니로의 인기 비결을 국내 SUV 중 최고 복합연료소비효율, 다양한 친환경 소재와 기술,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사양 등으로 꼽았다.

신형 니로는 스마트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엔진과 32kW 모터를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모터 출력 포함) 141마력을 발휘하며, 국내 SUV 중 최고 복합연비인 20.8km/L를 구현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솔린 SUV 중 20km/L대 연비는 신형 니로가 유일하다.

여기에 3세대 플랫폼 적용을 통한 커진 차체로 우수한 공간 활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SUV 특유의 세련되고 도전적인 외장 디자인과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동승석 릴렉스 컴포트 시트 등의 사양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갖췄다.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 2세대와 차량 내장에 사용된 재활용 섬유, 친환경 페인트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는 친환경 전용 SUV로서 신형 니로를 돋보이게 한다.

기아 관계자는 "신형 니로는 국내 SUV 중 최고 복합연비를 갖춘 기아의 대표적인 친환경 모델이다"라며 "이번 사전계약 성과를 통해 입증된 고객들의 기대감을 반영해 향후 친환경 SU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구자은 회장 취임 첫 행보 20억 기부 선행

사랑의열매 사회복지모금회 전달
사회취약계층 교육·의료 등 지원

LS그룹이 구자은 회장(사진) 체제 첫 행보로 이웃 돕기에 나섰다.

LG그룹은 19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올 초 구자은 회장이 취임한 후 첫 활동으로, 그룹 차원에서는 2009년부터 14번째 이어오고 있다.

LS의 기탁금은 사회복지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paartnership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대기오염 배출 확 줄인 GHP 출시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 에어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GHP 슈퍼3 플러스 선택

LG전자가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 에어컨(GHP)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확 줄였다.

LG전자는 19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 'GHP 슈퍼3 플러스'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GHP는 가스를 연료로 엔진을 구동시켜 냉난방을 하는 제품이다. 기본요금에 없는 가스를 사용해 경제적이지만,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LG전자 신제품은 삼원촉매장치로 오염 물질을 질소와 산소 등 무해한 가스로 변환하도록 했다. KS표준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량이 각각 15ppm, 90ppm, 90ppm 이하로 떨어졌다.

올 초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강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국내 첫 제품이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제품은 '5단계 청정관리' 기능을 적용한 LG 휘센 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한 다양한 상업용 실내기를 실외기 한대에 최대 58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오피스 빌딩, 학교, 의료시설 등에서 여러 개의 개별 공간을 동시에 냉난방 할 수 있다. 전기식 시스템에어컨 대표제품인 멀티브이와 연결해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시스템에어컨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전기식과 가스식을 유기적으로 연동해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제품은 GHP 업계 유일 국내 생산이다. 하이엔드솔루션이 관리와 서비스를 맡는다. 공기기종합유지관리시스템인 LG 비컨 클라우드로 온라인에서 장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LG전자는 신제품뿐 아니라 기존에 판매된 GHP에도 삼원촉매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서울신라호텔

'비스포크큐브 Air'로 키즈 라운지 공기관리

삼성전자가 서울신라호텔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비스포크 큐브 Air'로 깨끗한 공기를 선물한다.

삼성전자는 서울신라호텔 '키즈 라운지'에 비스포크 큐브 Air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신라호텔 키즈라운지는 어린이용 도서와 장난감, 편백나무 칩 필름 등으로 꾸며진 테마 공간이다. 어린이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속적인 공기 질 관리가 필수다.

'비스포크 AI+ 청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10분마다 실내의 공기 질을 분석하고 오



서울신라호텔 키즈 라운지에 설치된 비스포크 큐브 Air

/삼성전자

염도를 예측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필터 속 항균·살균부터 공간제균까지 가능한 '트리플 안심청정' 기능과 직접 닿는 바람 없이 저소음 청정이 가능한 '무풍청정' 기술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 준다.

아울러 비스포크 큐브 Air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공기 질 관리를 제공하고 큐브 형태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어느 장소에나 잘 어울리게 디자인됐다.

/김재용 기자 juk@